



계층분화

격변과 대립의 歷史

현대 한국사회 계층의 역사적 고찰



장 일 순
〈사회대 교수·사회학〉

I. 서론

60년대 초까지도 한국사회의 개인 국민소득은 1백불이 채 안 돼 북한의 것과 비교해도 적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가난 속에서 외식주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굶주렸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개인 별 국민소득이 5천달러가 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욕구불만과 좌절감 속에서 살고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은 욕구불만과 좌절감은 물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올 수 있었으나 필자는 그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보다는 훨씬 더 상승했기 때문이라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그 사회의 발달과정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각 다른 형태와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그 심화정도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제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노동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무, 관리

및 기술등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사회의 산업노동자에 대한 제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중간계급 및 계층문제에 대해 주로 알아보면서 특히 중간계급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한다.

본 소고에서는 오늘날 사회불

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에서는 계층 및 계급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 계층 및 계급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때 우리는 우선



농촌과 도시 빈민들의 생활상

다양한 계층별 분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산물 60년대 이후 도시 '중간계급' 급성장은 농촌과 대조적

평등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계급 및 계층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계급 및 계층분화과정에 대해 주로 알아보면서 특히 중간계급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한다.

II. 계층 및 계급에 대한 개념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사회계층 현상을 나타내는 많은 용어와 개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예를들어 졸부, 벼락부자, 복부인 등과 같은 유한 계층의 증가라는 말이 불가호이라든가 하는 용어 및 표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함으로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계층이나 계급이 모두 사회불평등을 의미함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층이 갖는 함의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급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개인과 집단은 위계적으로 서로 불평등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회공간 속에 층화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층화되어 있는 각 층의 배열을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의 계층구조는 어떤 차이에 의해 배열되느냐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소득, 능력, 권력, 생활양식, 직업 등은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차원들이다.

으로 고전적 맑스 계급이론에서 그 개념규정의 기준을 삼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맑스 관점에서 계급개념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부르조아)계급과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프롤레타리아)계급이 바로 그것이다. 맑스(Marx)의 계급모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람은 다렌도르프(Dahrendorf)라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러나 계급관계를 생산관계가 아닌 권위관계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계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직업에 의한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종사직업의 지위가 고용주일 경우 기능공이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본가계

급으로 본다든가 자영업자나 전문 기술자, 관리자, 사무직종사자로서 피용자인 경우 중간계급으로 분류한다든가 판매직, 서비스직, 농·축·수산업 종사자로서 피고용자인 경우 노동자 계급으로 분류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오늘날 계급을 분류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계층 및 계급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관점과 논쟁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이 글의 주관이 아니므로 최소한 여기에서 훑어보기 하고 다음에 해방 후 한국사회의 계층 및 계급이 어떻게 분화를 했는

어나던 1961년 까지의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비교적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해방 후의 귀족재산 처분과정에서 미국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이를 대부분 특정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써 특정인의 사유재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는 다시말해서 일부 독점자본의 형성

과 발전의 계기를 줌으로서 1950년대 이후 재벌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당시 이미 재벌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자본가들로서는

예를들어 삼성(이병철), 라포(구인회), 삼양(김영진), 화신(박충식), 대한(설경주), 금성(김성근), 개풍(이정환), 한국유리(최태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귀족재산의 열거불하, 원조·수입물자의 특혜 배정, 특허권 지리용자, 전 후 복귀를 위한 정부 및 미군과의 계약상 비경제적 특혜의 획득 등으로 그들의 독점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이와같은 소수의 특정 재벌(자본가)과 고급 정부관리를 제외한 1960년대 이전의 일반계급 및 계급구조는 큰 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1961년도 산업 별 취업인구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80%에 해당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해방 후 1960년대 이전의 계급구조는 극소수의 자본가 계급과 독립 자영업 및 농촌 하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12

IV. 결론

이상과 같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계층 및 계급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농촌의 자영업과 농촌 하류계급의 인구가 1960

한국사회의 불평등·계층별 분화는 해방이후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분과정에서 기인

에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24%가 이에 속한 것이 1980년에는 8%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독립 자영업 역시 1960년 40%에서 1980년 23.2%로 대폭 감소를 보였다.

둘째로는 신중간계급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를 구성하는 인구와 귀족계급 소위 말하는 기업가적 고용주를 제외한 자영업자를 구성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신중간계급은 1960년에 6.6%였던 것이 1980년에 17.7%로 크게 증가를 했으며 구중간계급 역시 1960년에 13.0%이던 것이 1980년에는 20.8%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다. 구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예를들어 슈퍼마켓 주인, 레스토랑 주인, 주유소 직원, 숙박업자 등등이다.

셋째로는 근로계급,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로서 조직부문에서 일하는 산업노동자계급을 구성하는 인구 역시 크게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1960년 8.9%에서

년 약 65%에서 1980년 약 32%로 대폭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의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이농현상과 특히 농촌의 빈곤층이 도시의 빈곤층 내지 산업노동자 계급으로 전환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에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간계급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1960년 노동인구의 20%도 못되던 것이 1980년에는 40%가까이 됨으로서 거의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중간계급은 신중간계급과 구중간계급을 합한 것이기에 어느정도 상이한 내부 구성을 갖고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중간 계층의 계속적인 증가와 확대는 현재 우리사회에 광범한 계급갈등을 풍어내거나 동시적으로 앞으로의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III. 해방 후 사회계층분화

해방 후로부터 5.16혁명이 일

‘一石二鳥’의 손익계산서



남·북한 측 국가대표단의 친선경기가 조만간 평양에서 열린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양측 모두 참석하여 경기를 갖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국제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반값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성사되리라는 소식을 접한 직후이기에 체육회담의 성사는 더욱더 듣는이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단기 분단이후 처음 갖는 친선경기라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설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이토록 '화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통일이라는 양측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벽'만을 높여 쌓아올리는 오해를 남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민간인들,의 대방면에 걸친 자주적 교류는 절실한 요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교류의 첫 시발점이 될것이라 하는 체육교류(가)에 상당한 유대감을 이룬 것은 유망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 합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친선경기

와 통일음악회' 성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정부가 주장해 온 장기 단일화의 소

산(가)인 친선경기를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에 대한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

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

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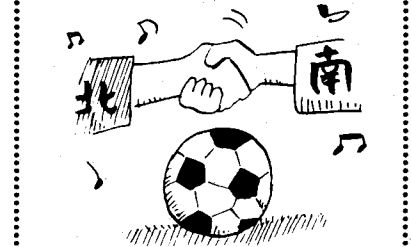
이들 뒷받침해 주듯 일부 제도권 언론은 '통일회담의 실질적 성과'라고 크게 보도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시봉자는 당국이 내부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가면서 체육교류를 승인하지는 않았으리라 믿고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일에 대한 열원을 정치·경제(가)의 도구로 삼는 범의적이거나 그 마술

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혹자는 좋은 일을 앞두고 찬물깨끗한 소리말라고 편파를 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최소한 미국이나 그의 다른이 북과 북한의 경기에서 한국의 어린이들이 북한을 아우르고 타국을 응원하는 비국민들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불식시켰으면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들의 자그마한 바람일 것이다.



학술정보

중앙박물관 교양강좌

국립중앙박물관 공개교양 문화 강좌가 매주 토요일 하오2시 박물관사회의교육관에서 열린다.

영화30분, 강의2시간으로 이뤄지는 이번 강좌는 수강료는 무료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6일=청동기인간의 문화 (이건우) ▲13일=삼국시대의 불

교미술(강우방) ▲20일=고전건축의 조형미(김동현) ▲27일=한국의 숭신앙(이종철) ▲11월3일=민족종교(김정환) ▲10일=한국철학의 상징성(김영규) (연락처:739-3872)

YMCA심포지움 개최

'지역 민주주의' 주제

'지역민주주의와 참여'를 주제로 대한 YMCA 연맹과 아시아연 구회의 공동 심포지움이 25일 오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는 국내 학자

시민대표와 미국,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참가한다. (연락처:900-4663)

‘중동문제’ 강연회

‘중동문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강연회가 대한여 학사협회 주최로 27일 오전 10시 미국공무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연락처:993-2378)

대한국제 법학회 심포지엄

한·소경제 교류에 있어서의

법적 제문제'를 주제로 대한국제 법학회 주최의 심포지움이 오늘 상오9시30분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연락처:752-9605)

총신대 기독교연구소 학술발표회

총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는 28일 하오5시 총신대 신관2층 세미나실에서 '창조기사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연락처:590-5101)



세계는 '다농' 친구

상큼한 맛의 건강 다이어트, 다농은 세가지 맛!

- 딸기 다농: 요구르트 속에 상큼한 딸기가 듬뿍 들어있는 농도 짙은 맛.
- 얼대과일 다농: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 망고 등 열대과일의 상큼한 맛.
- 복숭아 다농: 신선한 복숭아 조각이 가득, 부드럽게 씹히는 달콤한 맛.

두산유업주식회사